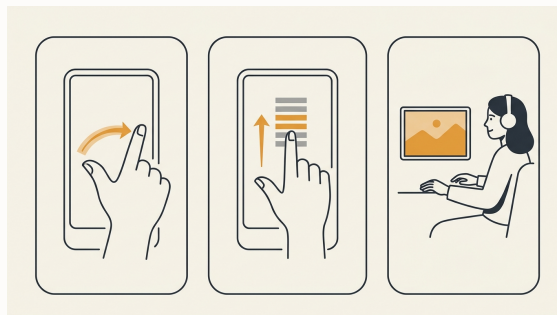




쇼트폼은 멋

0.12초 안에 넘어갑니다. 그 전에 붙잡아야 합니다

강의 영상에서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교재입니다

정원석 지음 · Connect AI LAB

차례

이 챕터에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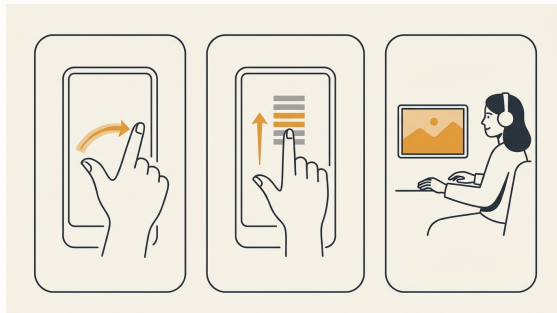
-
- | | |
|---|--|
| 1 | 0.12초 안에 결정됩니다
손가락 하나로 넘어갑니다 |
| 2 | 네 가지 원칙
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|
-

각 절 끝에 그 내용을 설명한 강의 영상이 붙어 있습니다. QR 을 찍으면 휴대폰에서도 열립니다.

1

0.12초 안에 결정됩니다

손가락 하나로 넘어갑니다



지하철에서 벌어지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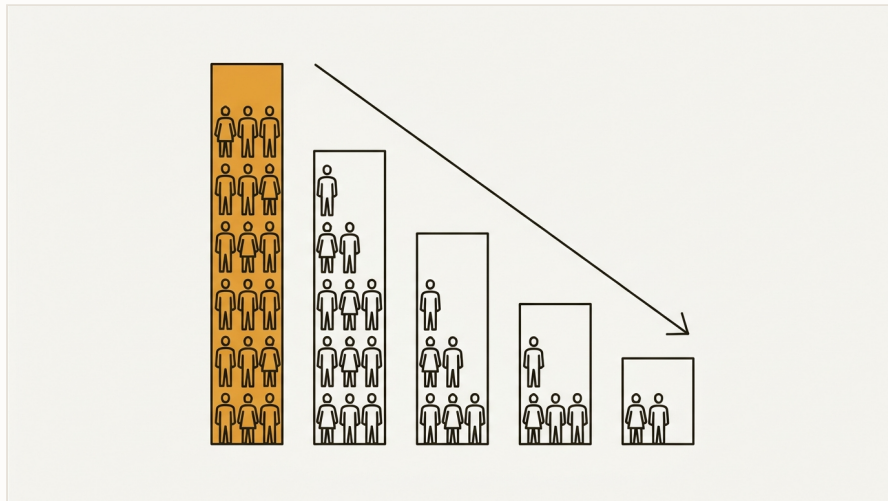
사람들이 영상을 어떻게 봅니까. 지하철에서 손가락 하나로 **올립니다**. 올리고, 올리고, 또 올립니다.

「뭐지? 어, 뭐지? 어, 뭐지?」 사람의 두뇌는 아주 짧게 보고 **더 볼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**를 판단해 손가락 끝으로 보내 버립니다.

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**0.12초**입니다. 두뇌에서 손끝까지 정보가 가는 데도 그 정도입니다.

1초 안에 사로잡지 못하는 영상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.

실제 이탈률



제 계정의 뷰 인사이트를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. 영상을 올리면 시작은 100% 입니다. 그다음은 문제입니다.

시점	남은 사람
1초대	10명 중 9명 (8% 이탈)
2초대	10명 중 7명
3초대	10명 중 5명
15초대	20~30% 만 끝까지

그래서 앞부분을 잘 만드는 것이 뒷부분보다 중요합니다.

알고리즘이 보는 것

쇼츠 알고리즘은 이렇게 판단합니다. 3초가 지났는데 일곱 명이 남아 있다. 그러면 「이건 사람들이 재미있어 할 영상이구나」 하고 알고리즘에 태울 준비를 합니다.

인스타그램만이 아닙니다. 유튜브도 틱톡도, 쇼트폼이 있는 모든 플랫폼이 시청 시간을 가장 중요한 지표로 봅니다.

왜일까요. 오래 볼수록 광고를 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.

멋이란 무엇인가

제가 인스타그램을 「멋」이라고 표현했습니다. 예쁘고 잘생기고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.

멋이란 넘기지 못하게 만드는 힘입니다.

손가락으로 올리려다가 「어, 이거 뭐야」 하고 두뇌가 멈추는 그 지점. 그것을 멋이라고 불렀습니다.

영상으로 보기

인스타그램은 '멋' — 본강의

약 30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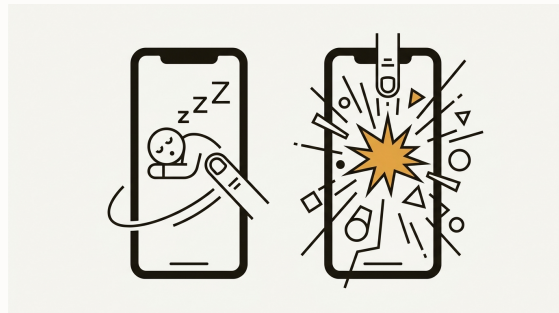
youtu.be/hdbI5dr18pY

휴대폰으로 찍으면 바로 열립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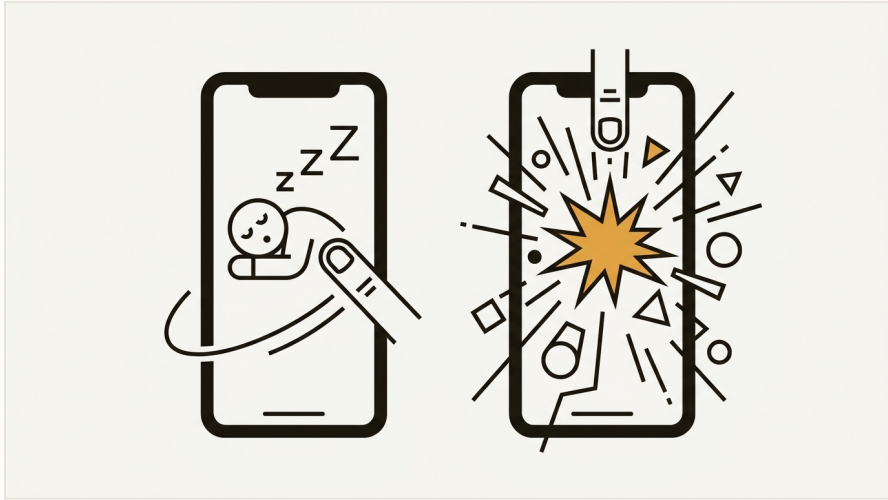
2

네 가지 원칙

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



여섯 계정에서 찾은 것



잘하는 계정 여섯 개를 뜯어보니 공통점이 있었습니다.

1

첫 프레임에 정지 화면을 두지 않는다

어느 계정도 멈춘 그림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. 「저는 무엇을 시작하겠습니다」가 아니라 **중간부터 빵** 하고 나옵니다.

2

읽게 하지 않고 보게 한다

표정과 색과 물체의 움직임으로 **1.7초**를 가둡니다.

3

볼 것을 하나만 둔다

눈이 헤매지 않게 가장 중요한 하나를 크게 둡니다.

4

익숙하면 넘어간다

완전히 익숙한 화면은 그냥 넘겨집니다. **무언가 달라야 합니다.**

저는 셋째를 반대로 씁니다

세 번째 원칙은 「하나만 크게」인데, 저는 두세 개를 한꺼번에 둡니다.

여러 요소를 넣어서 두뇌가 정보를 전부 인식하는 데 시간이 걸리게 만드는 전략입니다. 그 시간만큼 사람이 머뭙니다.

원칙은 원칙이고, 자기 방식은 따로 찾을 수 있습니다.

롱폼에서도 같습니다

요즘 유튜브 롱폼에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. 시리즈를 1, 2, 3, 4, 5로 만들면 1편은 잘 나오는데 2편부터 안 나옵니다.

1부터 5가 비슷하니까 알고리즘이 추천을 안 해 주는 것입니다.

그래서 롱폼도 굉장히 새로워야 합니다. 1편 다르고 다음 편 다르고, 완전히 다른 것을 계속 내놓아야 조회수가 높습니다.

고래 영상 — 같은 소재, 다른 결과

한 계정에 고래 영상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. 하나는 2,900만 뷰, 나머지는 5만, 10만이었습니다.

	2,900만 뷰	5만 뷰
시작	물 → 고래가 튀어나옴 → 다시 물	고래가 이미 화면에 있음
움직임	엄청나게 역동적	천천히, 화면이 거의 안 변함
예측	예상치 못함	다음이 예측됨

「고래라서 잘된 것 아니냐」고 하실 수 있습니다. 같은 고래인데 결과가 달랐습니다. 소재가 아니라 앞 1초입니다.

하나가 터지면 주변 영상도 함께 올라갑니다. 5만·10만도 그 덕을 본 숫자입니다.

네 계정, 네 가지 결

계정	무기
카비	말을 하지 않아 언어와 상관없이 전 세계가 즐겁니다. 「이거 이렇게 하면 쉬운데」 하는 표정 하나로 컷습니다
재킹	첫 프레임부터 물리 법칙을 어깁니다 . 말이 안 되는 장면. 영상으로 하는 마술
딜런	손과 색감 . 아이스크림 만드는 과정, 열고 나오고 넣고
차 크리에이터	차 → 인물 → 차 → 인물 . 1초마다 번갈아 가는 구조를 찾아냈습니다

보실 때 **맨 위 것을 보지 마세요**. 맨 아래로 내려가 처음부터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훑으세요. 그리고 조회수 높은 것만 열어 보세요.

구글 플로우로 따라해 보기

이론만 보면 안 됩니다. 바로 만들어 봅니다. 구글에서 **플로우**를 검색하면 나옵니다.

1

영상을 하나 찍습니다

컵을 놓고 스마트폰을 기울여 따르는 시늉을 합니다. 7초면 충분합니다.

2

플로우에 올립니다

새 프로젝트 → 업로드 미디어로 그 영상을 넣습니다.

3

한 줄로 시킵니다

「스마트폰에서 음료수가 나와서 컵에 들어간다」 — 이 정도면 됩니다. 한 번에 네 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.

4

상상력을 더합니다

「스마트폰에서 두 번째 이미지의 그림이 나오고, 종이컵이 그 그림의 색으로 변한다」 처럼 시켜 보세요.

구글 프로 요금제가 월 2만 원 정도입니다. 여러 용도로 쓸 수 있어 한 번 써 보시길 권합니다.

오늘의 숙제

이번 강의에서 하셔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.

1.7초 안에 어떻게 시선을 끌 것인가.

자동차 크리에이터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. 자동차, 사람, 자동차, 사람. 그 정도 간격이 1.7초입니다.

순서	할 일
1	계정들을 분석 합니다
2	가장 해 보고 싶은 채널 하나 를 고릅니다
3	구글 플로우로 직접 만들어 봅니다
4	참고 자료를 노트북LM 에 넣고 공부 합니다

이론, 원칙, 실습, 공부. 이 네 단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.

영상으로 보기

인스타그램은 '멋' — 본강의

같은 영상 · 채널 분석 부분



youtu.be/hdbI5dr18pY

휴대폰으로 찍으면 바로 열립니다

다음

챕터 3 · 글은 횡수

수명이 52분입니다. 그래서 자주 써야 합니다

챕터 3 읽기

강의 목록으로 돌아가려면 [여기](#)를 누르세요.